

## 16세기 星州 지역 妓生과 樂工의 존재 양상 -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류 속 영\*

### 차 례

- |                  |           |
|------------------|-----------|
| 1. 서론            | 2) 樂工의 경우 |
| 2. 妓生과 樂工의 존재 양상 | 3. 결론     |
| 1) 妓生の 경우        |           |

### 국문초록

李文樞(1494-1567)의 『默齋日記』는 작가의 일상적 삶을 연속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생활 자료이다. 이 논문은 『묵재일기』 중 이문건이 유배왔던 성주에서의 22년간의 기록을 대상으로 지방의 기생과 악공의 존재 양상을 고찰했다.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기간 중 성주에서 활동했던 기생은 약 80명 가량이었으며 모두 官妓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選上된 경험의 유무에 따라 크게 京妓와 地方妓로 나눌 수 있었으며, 경기로서 특별한 이유로 인해 지방에 내려와 활동한 京來妓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 경기의 존재는 選上

\* 부산대학교 강사

妓가 선상되었다가 다시 본읍으로 돌아왔다는 증거였다. 기생들의 주된 임무는 기예를 제공하여 다양한 연회의 즐거움을 돕는 것이었다. 이들의 기예가 크고 작은 연회는 물론 사대부의 일상 생활 속 어디에서나 제공되는 구체적 현장을 확인했다. 연행 현장에서 기생이 제공한 기예는 노래와 琴의 연주가 일반적이었다. 지방기의 대부분은 연회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예를 제공했던 것에 반해, 일부의 경기들은 높은 기예의 수준에 도달해서 사대부들의 예술적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이를 彦伊, 長非, 露凝香, 卓文兒의 존재를 통해 밝혔다. 기생의 기예 중 노래와 악기 연주는 예술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춤은 사대부들에게 특별한 미감을 제공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고찰할 수 있었다. 기생은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사대부의 여행이나 지방 행차에 동행하면서 지방 음악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경래기와 상경기는 서울과 지방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경향의 음악적 격차를 해소하는 교량 역할을 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주와 그 인근 지역의 악공의 존재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방 악공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 악공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業山, 介, 卜成, 金石, 呂孫 등의 笛工이었다. 이들은 官奴 중에서 발탁되어, 평소에는 관에서 부여한 奴役に 종사하다가 관의 명에 따라 笛工의 역할을 겸했다는 점에서 한시적이고 비자발적인 음악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관노 신분이긴 하되, 음악적 기예 연마에 주력하여 특정 악기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적 성취에 도달한 전문 음악인이다. 이들은 악기 연주에서 사대부들이 기대하는 예술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어서, 기예 연마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과 숙련의 과정을 거쳐 특정 악기에서 일가를 이루는 경향을 보였다. 千終은 笛, 張豹는 琴, 枝孫은 伽倻琴 연주가 각각 전문이었다. 세 번째 유형은 서울의 장악원에 소속된 악공으로서 지방으로 내려와 활동한 음악인들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鄭希文과 李守種인데, 둘은

사제지간으로서 琴을 전문으로 다루었다. 정희문은 古調의 정통성을 이어가고자 했고, 이수중은 新聲을 창안하여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음악적 성향을 지녔다. 이들의 지방 출현은, 서울의 고급 음악과 최신 유행 음악을 접할 기회를 맞은 사대부들이 단순히 관심의 표명에만 그치지 않고, 서울 음악의 경향을 파악하고 배워서 지방 음악을 쇄신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다 점에서, 지방 음악에 미친 이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지방의 전문 음악인은 다른 지방과의 음악적 교류를 가능케 했다면, 서울의 전문 음악인은 지방과 서울의 음악적 격차 해소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각각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제어 : 16세기, 성주, 이문건, 목재일기, 기생, 악공, 적공.

## 1. 서론

이 글은 16세기 경상북도 星州 지역에서 활동했던 음악 담당층의 존재 양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시대 시가문학이 시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노래로 불리면서 향유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시가의 연행과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시가 향유의 온전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연행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행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가 부족한 탓으로 진척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귀중한 연구 성과가 그 동안 어느 정도 축적되어 왔긴 했으나,<sup>1)</sup> 실록이나 법전,

1) 대표적 논의로는 다음과 같다. 김동욱, 「이조기녀사서설」, 『아세아여성연구』 5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66.; 이능우, 『고시가논고』, 숙명여자대

악장등록과 같은 관찬 자료나, 개인 문집 속의 단편적인 기록에 의지해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이것을 보완할 만한 민간 자료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 근래 『眉巖日記』, 『草澗日記』, 『瑣尾錄』, 『丙子日記』 등 16세기의 사대부들의 일기류가 다수 발굴됨에 따라 좀더 구체적인 일상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李文樞(1494-1567)의 『默齋日記』<sup>2)</sup>, 1535년(중종 30) 이문건이 41세 때부터 쓰기 시작하여 73세의 나이로 죽기 전인 1567년(명종 22)까지 17년 8개월 동안 쓴 일기를 모아 놓은 책이다. 기록벽이 보일 정도로 하루도 빠짐없이 세세한 일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담고 있어, 일상의 연속성을 가지고 기록한 구체적인 생활 자료로서 규범으로서의 삶이 아닌 일상 생활의 실상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더구나 3책에서 10책까지는 모두 성주에서의 유배생활(1545년 9월 16일~1567년 2월 16일)에 대한 기록으로<sup>3)</sup> 16세기 성주 지역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문건은 星州 李氏 명문거족 출신으로, 19세에 司馬試에 합격했으나 25세 되던 해에 己卯土禍에 연루되어 1527년(성종 22)까지 유배되었다. 이후 解配되어 승문원, 승정원, 시강원 등의 주요 관직을 역임하며 중앙 정계에서 활약하지만, 다시 乙巳土禍에 연루되어 승정원 동부승지 직에서 파직되면서 그의 貫鄉인 성주에 유배되어 여기서 일생을 마감했다. 정치적으로는 불우했다고 할 수 있지만, 유배생활 중에는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유지하면서 성주 지역의 가장 유력한 인물로 행세

학교 출판부, 1983.; 송방송, 『악장등록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박규홍, 『시조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96.; 강명관, 「조선전기 사대부의 음악향유의 제 양상」,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 2) 『목재일기』에서 인용하는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며, 앞으로 인용할 때는 날짜만 표기하기로 한다.
- 3) 이문건의 생애와 일기의 구성에 대해서는 김현영, 「16세기 한 양반의 일상과 재지사족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8집, 조선시대사학회, 2001, 65~70면 참조.

하면서 살았다. 대대로 중앙의 관직을 지낸赫赫한 집안이었기에 각지의 친인척과 현직에 있는 중앙관료와 지방관 등의 동료들, 과거 급제와 관직에의 진출을 통해 형성된 동료 집단, 기묘·을사사회를 같이 겪었던 인물들은 이문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그의 입지를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다.

『묵재일기』에는 이들과 교류하면서, 또는 성주 지역의 인사들과 친분을 다지면서 이루어졌던 각종 연회의 상황을 자세하고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러한 연회에 초청받았던 기생이나 악공의 이름까지 일일이 열거할 정도로 자세하게 전하고 있어, 16세기 지방 음악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더없이 좋은 자료가 된다. 특히, 16세기는 사림 계열의 사대부들이 주도하여 민간 음악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단행되었던 시기인데, 이문건은 당시 사대부들이 보편적으로 향유했던 민간 음악의 실상을 일기 속에서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默齋日記』에 수록된 방대한 음악 관련 자료들 중에서, 우선 음악 담당층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들을 대상으로 지방 음악의 연행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사대부들의 음악 향유를 위해 동원된 음악 연행의 담당층으로는 크게 妓生과 樂工, 그리고 음악적 기예를 지닌 私奴婢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서울과 지방의 구분 없이 마찬가지로였다. 차이가 있다면, 서울에서는 기생과 악공이 掌樂院에 소속되었음에 반해, 지방에서는 그 지역 관아의 敎坊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노비의 경우는 그 역할과 성격이 서울이라고 해서 지방과 별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단 지방 기생과 악공이라는 음악 담당층에 국한해서 그들의 존재 양상과 활동을 살펴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 2. 妓生과 樂工의 존재 양상

### 1) 妓生の 경우

우선 일기에 보이는 기생들의 현황을 살펴보자. 성주에서 이문건의 유배 기간은 1545년 9월 16일~1567년 2월 16일까지 약 22년간인데, 유배 온 직후인 1545년 10월 14일부터 기생에 대한 기사가 기재되기 시작하여 1566년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중 일기에 나타나는 기생의 수는 약 8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실명이 거론되는 인물만 68명에 달한다. 또한 기생의 특징이나 역할에 따라 京上妓, 州妓, 老妓, 童妓, 翰林房妓, 絃色妓, 贖身妓 등의 명칭을 이름 앞에 기재하고 있어 그들의 소속이나 하는 일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sup>4)</sup>

기생을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소속처에 따라 장악원에 속한 京妓와 지방 관아에 소속된 地方妓로 구분할 수 있다.<sup>5)</sup> 기생은 지방의 관아에 소속된 지방기이나, 이들 중 서울로 선상된

4) 『목재일기』에 나타나는 기생을 경기와 지방기로 분류하고, 기생을 지칭하는 용어를 최대한 반영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속	명 칭	<별칭> 이름
지역 地方妓	京妓	<京來妓> 只丹心, 露凝香. <京上妓> 延今, 迎今, 卓文兒, 彦伊, 溫之, 今伊. 長非. *掌樂妓生
	성주 지역	知吾, 翁今, 終代, 雲從, 儀之, 燕德, 只, 九月, 漢陽, 雲終, 分伊, 蘭非, 愛終, 燕代, 尹之, 百之, 叔之, 仁今, 姜之, 仁今, 玉只, 玉只, 臺月, 雲英, 叔德, 叱同代, 丙代, 車令. 叔德(歌妓), 八非(歌妓, 伽琴妓) 自經(新選妓) <老妓> 銀臺仙, 万今, 玉只, 雍今, 欣非, 申德, 弄今, 叔非 <少妓> 雲鶴 <房妓> 鳳伊, 思郎, 叔之(教官妓). 教首妓, 翰林房妓, 房姬 <首飾妓> 東山月 <行首妓> 末叱終, 倚深香, 石生花, 免終 <隣妓> 玉只, 迄伊, 九月 * 絃色妓, 風流婢, 汲婢, 贖身妓, 謫妓.
	성주 외지역	尙州妓(終哥), 光川妓婢(奉代), 安東老妓, 密陽老妓, 金海妓, 慶州妓, 光州老妓

5) 기생의 구분에 대한 논의는 이성임,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女妓의 立役과 運用」, 『대동한문학』 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86~87면 참조.

경험이 있거나 선상될 기녀를 지칭할 때는 京上妓, 上京妓, 掌樂妓生 등으로 불렸다. 조선전기 選上妓는 원칙적으로 장악원에 상주하다 50세가 되어 樂籍에 제적됨으로써 妓役을 면제 받아 본읍으로 되돌려질 때까지 京妓로 입역하였다.<sup>6)</sup> 그러나, 일기에 나타나는 이들의 존재는 선상된 기생들이 기억을 마칠 때까지 京妓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들의 소속 고을로 돌아와 기억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京來妓의 존재인데, 京上妓가 지방의 관기가 서울로 선상된 기생이라면, 경래기는 서울의 京妓가 지방으로 온 경우 그 기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래기는 只丹心, 露凝香인데, 지단심은 누구인지 자세히 알기 어려우나, 노응향은 일명 凝露花로 명종 3년(1548)에 부마 淸原君 韓景祿을 간음으로 파직당하게 한 인물이다.<sup>7)</sup> 이문건이 성주 기생 노응향을 謫妓라 칭한 것을 보면<sup>8)</sup> 둘은 동일 인물로 파악된다. 한경록의 일로 노응향은 성주로 쫓겨 온 것으로 추정된다. 적기를 ‘유배’ 온 기생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노응향이 1551년 원자가 태어나는 나라의 경축일에 “만약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다”라 한 것을 보면 죄를 지어 쫓겨난 기생의 경우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제약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京妓 卓文兒와 老妓 銀臺仙은 그 나이를 알 수 있어 기생의 활동 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탁문아는 『武陵雜稿』에 보면 周世鵬(1495~

6) 이규리, 「<읍지>로 본 조선시대 관기운용의 실태」, 『한국사연구』 130집, 한국사연구회, 2005, 157면.

7) “淸化守 李昌叔은 서얼 중친으로서, 지위가 높은 부마와 사귀어 창기를 데리고 술을 마심으로써 부마 한경록을 간음으로 파직당하게 하였고, 창기 露凝香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부마를 유인하여 밤낮으로 꺼리낌없이 방자한 행동을 하였으니, 그 방자한 행동을 한 것까지 아울러 끝까지 추고하도록 하라.” 『명종실록』, 명종 3년 1월22일. 노응향이 『목재일기』에 처음 나타나는 시기도 1548년 5월 25일이다. 京來妓只丹心·露凝香等亦來, 并饋之. \* 『조선왕조실록』의 자료는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 근거한다.

8) 1551년 6월 5일. 謫妓露凝香 聞慶事, 喜而來報, 若還本鄉極幸云云.

1554)이 동료들과 1544년 4월 9일 청량산을 유람하기 위해 풍기에 모였을 때, 주세붕과 동년이라며 술동이를 가지고 와 대학을 송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당시에 탁문아는 복주 기생으로 소개되고 있다.<sup>9)</sup> 『목재일기』에서 탁문아와 관련된 기록은 1546년 6월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복주에서 가까운 성주 지역으로 옮겨 와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에 보이듯 주세붕과 탁문아가 동년으로 1544년 당시 탁문아의 나이는 50살이다. 『목재일기』에서 탁문아는 1555년 10월 30일 권응정의 집에서 모임에서 二道, 즉 판관이 보낸 관기 중 한 명으로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마지막 기록이다.<sup>10)</sup> 이로써 본다면 적어도 탁문아는 1555년 61세까지 妓役을 행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銀臺仙은 1545년에 나이 70세라 하였는데<sup>11)</sup>, 관기로서 뚜렷한 활동은 하지 않고 사대부의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정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생은 50세가 되면 그 역을 면한다 하나, 탁문아의 경우에서처럼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생은 모두 관기이며, 그 직책에 따라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들의 수청을 들었던 房妓, 기생들의 우두머리 격으로 교방을 관할했던 行首妓, 머리를 장식하는 일을 맡았던 首飾妓 등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기생의 기본적 임무는 노래와 기악, 춤과 같은 기예를 익혀 관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연회에 동원되어 음악을 제공하는 것

9) 有福妓卓文兒者 與余同乙生 貨得一樽抱來曰 今夜 老子似發高興 老妓興復不淺 遂開酌大醉 適曰 若不誦大學 恐其流也 遂令誦大學 至其心休休 以義爲利等語 輒三復永嘆 有慨於前古也. 주세붕, 『武陵雜稿』 卷之七 原集 雜著 <遊清涼山錄>, a\_027\_035a. \* 『한국문집총간』의 자료는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 근거하며, 자료의 면수의 표기도 한국고전종합DB의 체계를 따르기로 한다. a\_027\_035a는 27집 35면을 의미한다.

10) 1555년 10월 30일. 促食投村, 直到士遇家, 士遇有服痛證, 不得野遊云, 景遇·呂權會此, 李純仁三兄弟及朴乙等備酒肴, 看望兩遇矣, 二道所送妓工亦來, 露凝香·長非·卓文兒等爭唱, 可聽也.

11) 1545년 10월 14일. 老妓銀臺仙年七十云來見.

이었다.

- 1) 두 성주가 함께 신완산으로 내려와 답청하는 자리를 베풀었다. 士遇, 景遇를 만났는데 나에게 알려줘서 식후에 모임에 갔다. 먼저 술자리를 베풀어 각자 술을 마시고 점심을 먹었다. 기생 露凝香에게 노래하고 술자리를 돕게 했다. 해가 저물어 이내 마치고 흩어졌다.<sup>12)</sup>
- 2) 呂應과 함께 若木 李熙明의 집에 모였다. 景明이 와 있었고 경우, 사우가 왔다. 守應, 得應, 仁和 朴乙 등이 따라 왔다. 주인이 과일 을 갖추어 술을 마셨다. 기생을 불러 琴歌게 하여 즐거움을 도왔다.<sup>13)</sup>
- 3) 목사가 사람을 시켜 알리기를 요즈음 매우 적조하였는데, 저녁에 들어와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저녁을 서둘러 먹고 여덟이 드리우자 관아에 들어갔다. 목사의 공무가 아직 끝나지 않아 바깥에 대기하다가 오랜 후에 들어가 보았다. 敎官 鄭壽夫도 왔고 判官의 사돈인 거창 사람 李公도 모였다. 判官이 저녁에 모여서 드디어 술자리를 하고 이야기하였다. <중략> 彦伊에게 가야금을 연주하고 노래하게 했는데, 들을 만하였다.<sup>14)</sup>
- 4) 柳復元, 林哲恭 등이 南亭子에 올라 만나 바둑을 가지고 모여 임과 바둑을 두고 또 부원과 임이 장기를 두었다. 점심 후에 少酌을 베풀었다. 李眞, 宋希仁, 金大寶 등 역시 와서 마셨고, 저녁에 목사가 와서 이야기 했다. 京妓 彦伊, 延今 등을 불러 노래하게 하고 각각

12) 1556년 3월 3일. 兩城主如新院山下, 設踏青席, 邀話士遇·景遇, 又諭我出來, 食後投會, 先設酌, 各行酒, 酒止點心, 點心訖, 令妓露凝香歌而侑酒焉, 日亦向暮, 乃罷散.

13) 1556년 3월 18일. 呂應諸早到, 不能出見, 吾復促食食之, 借乘呂馬, 偕呂投若木李熙明家參會, 景明來在, 兩遇令公亦來會, 守應·得應·仁和朴乙等隨來, 主人設果盤行酒, 招妓生琴歌助歡.

14) 1551년 11월 1일. 令道諭, 近甚阻奉, 夕可入云, 促食夕食, 垂暮入州衙, 牧伯公事未畢, 坐外待之, 久然後入見, 敎官鄭壽夫亦來, 二道查頓居昌人李公亦會, 二道昏乃會, 遂設酌話, 御史所捉酒, 以復酒庫取招, 似入罷律, 故六日間出往高靈待之云云, 令彦伊彈伽琴而歌之, 可聽也, 各再行酒, 牧伯復行二杯, 乃辭出還堂, 醉渴飲湯鼓琴, 疲困乃寢.

行酒를 하고 밤이 되어 끝냈다.<sup>15)</sup>

- 5) 밥을 먹고 당으로 돌아오니 꽃봉오리가 처음 피려하였다. 柳霖이 다시 와서 開酌하게 했다. 鄭允福 역시 와서 참석했고 서점책장을 묶어 가져왔다. 유림에게 사랑스런 매화가 피었다는 편지를 보내 이도에게 歌妓를 보내 달라고 청하니 이내 叔德, 八非 등을 보내와 노래하게 하고 술을 따르게 했다. 宋彦章이 따라 방문해서 기뻐 친구와 같이 하루 종일 술을 먹었다.<sup>16)</sup>
- 6) 崔文源이 방문하여 실컷 이야기를 나눴고 二道 崔巨川이 와서 위로했다. 文源이 濟用副正을 제수받아 서울로 간다고 했다. 鄭壽夫가 왔고 州人이 도구를 갖추어 자리를 마련했고 기생이 琴歌하고 술 마셨다.<sup>17)</sup>
- 7) 눈물이 흘러 편하지 않았고 누워 신음했다. 무료하여 命卜母를 불러 가야금을 치게 하고 또 교방의 기생을 부르니 수 명이 와서 노래하기에 술을 먹여 보냈다.<sup>18)</sup>

1)과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생의 주된 임무는 ‘歌而侑酒’, ‘琴歌助歡’으로서, 노래와 악기 연주를 제공하여 사대부들의 술자리에서 그 즐거움을 돕게 하는 것이다. 3)이하의 기록은 기생이 초청되었던 구체적인 현장을 보여준다. 3)는 목사가 공무를 처리한 뒤에 기생의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술자리로 환담을 나누는 자리이다. 4), 5), 6)에서는 지방 사대부들이 남정자에 모여 비독을 두고 술도 마시며 여가를 보내는 자리, 매

15) 1548년 5월 23일. 柳復元·林哲恭等上南亭子邀之, 持碁上會, 與林着之, 復元與林又着將棋, 點心後設少酌, 李眞·宋希仁·金大寶等亦來飲之, 暮牧令公上來會話, 招京妓伊尹·延今等使歌之, 各行酒, 夜罷乃下.

16) 1551년 2월 12일. 食食還堂, 困睡, 睡初起, 柳霖復來見, 爲之開酌, 鄭允福亦來參, 書占冊粧束來遣, 爲柳霖兼戀梅發簡, 告二道請致歌妓, 乃送叔德·八非等, 使歌而酌之, 適宋彦章來訪, 喜得一友共酌之, 以終永日, 夕乃罷去.

17) 1551년 11월 29일. 崔文源歷訪叙話, 二道 崔巨川亦來見, 蘇慰可知, 文源授濟用副正上京云, 鄭壽夫亦來見, 州人設供具, 妓生琴歌, 各行酒, 文源將往開寧云, 忙發別去, 巨川·壽夫復入更酌, 鄭先去, 巨川亦辭入城.

18) 1551년 11월 18일. 涕流不平臥呻之, 不堪寥寥, 令招命卜母彈伽琴, 又召妓于教坊, 數名來歌, 饋酒送之.

화가 핀 것을 반겨하며 마련한 주연, 벼슬을 받아 서울로 떠나는 친구 최문원을 전별하는 자리 등에 각각 기생들이 초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친구와 환담할 때, 친구를 떠나보낼 때, 공무를 끝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꽃이 새로 필 때 등과 같은, 사대부들의 사소한 일상사에서 酒宴이 펼쳐지는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기생이 동원되었다. 특히 7)은 소규모의 연회나 모임도 아닌 한 개인의 울적한 심사를 풀기 위해 기생의 음악을 제공받고 있는데,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심심찮게 나타난다. 기생들이 제공하는 음악을 파적 삼아서 듣기도 하고<sup>19)</sup> 처와 함께<sup>20)</sup> 또는 자손과 피서를 하면서도 즐기기도 했으며<sup>21)</sup>, 기생이 연회를 위해 갖춘 복장이 아니라 便服을 입은 채로 음악을 연주할<sup>22)</sup> 만큼 사대부의 생활 속 깊숙이 기생이 자리하고 있었다.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기생의 연행은 琴을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琴歌’가 일반적 형태였는데, 이들의 기에는 사대부들로부터 예술적 감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연회의 흥을 돋우는 방편일 따름이었다. 반면, 3)에서 언이의 경우는 “들음만 했다”라며 언이의 기예에 대해 평을 내리며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언이는 이와 같이 사대부에게 뛰어난 실력을 인정 받으며 어느 정도 사대부들의 예술적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1) 아침에 술병을 들고 목백을 만나러 갔다. 執蠹을 하면서 만아들이

19) 1551년 2월 11일. 老妓玉只來, 使之彈琴破寂.

20) 1551년 2월 26일. 招彥伊使歌之, 與李遇共聽, 遇去後率下家, 與妻共聽之, 小酌焉, 夕去.

21) 1552년 7월 20일. 遂上南亭避暑, 與子孫共處, 令教坊送妓, 妓二人晚至, 向夕黃恪氏來話着將棋, 二道送西瓜共嘗之, 金自粹送梨卮共嘗之, 僧普明因牧伯之招下來, 遺菰廿五, 分遺妓生, 日沒黃恪去, 露凝香來歌之, 吾以琴和之, 昏乃還.

22) 1556년 3월 9일. 士遇簡邀曰, 今吾初度, 可來啗餅云, 午往見之, 景遇亦在, 姜彥叟亦來, 權守設辦矣, 權應中·朴汝舟同參, 妓生以便服奏歌琴, 各行酒, 吾亦行酒, 酒畢乃辭還, 見兒輩食食焉.

역병에서 호전된 것을 축하해 주었는데, 巨川 역시 같이 마셨다. 張豹를 데리고 가서 琴을 연주케 했는데, 彦伊가 노래로 화답하면서 내 귀를 즐겁게 했다.<sup>23)</sup>

- 2) 君擇이가 낮에 와서 함께 바둑 두 판을 두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저녁에 韓史孫을 불러 보았고 또 生員 孫澄을 만나 이야기 했다. 令道가 술과 과일 안주를 보내어 달을 보고 앉아 술을 마셨다. 君擇이 절구를 짓고 나와 징이 화답했다. 또 彦伊를 불러 노래하게 하고 내가 다시 琴을 연주하여 즐거움을 삼았다.<sup>24)</sup>

1)은 彦伊가 張豹라는 악공의 琴 연주에 노래로 화답하여 이문건의 귀를 즐겁게 했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장표는 금 연주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사대부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누렸는데, 여기에 화답했던 언이의 노래 실력은 장표의 금 연주에 상응할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에서는 술을 마시며 달을 완상하고 절구로 화답하는 풍류의 자리에 언이가 단독으로 초청되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기생의 노래가 일반적으로 연회에서 흥을 돋우는 데서 불러졌던 것과는 달리 사대부들의 전아한 풍류적 미감에 언이의 노래가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언이는 이문건의 집으로 초청되어 이문건의 처와 자식들을 위해 노래하는 유일한 기생이기도 하고<sup>25)</sup>, 사대부들이 꿩 사냥을 하는 자리에서도 노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6)</sup> 이런 자리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이

23) 1552년 4월 23일. 朝持壺酒, 投見牧伯, 執盞賀胤好行疫, 巨川亦共酌, 率張豹使奏琴, 彦伊歌而和之, 可悅吾耳也.

24) 1552년 10월 14일. 君擇午出來, 與着圍碁二局, 留話共啖夕飯, 抵昏招韓史孫見之, 又邀孫生員澄話之, 令道送酒及果盤, 坐月而酌之, 君擇作絕句, 吾與澄和之, 又招彦伊奏歌, 吾復扣琴爲樂, 到夜分罷去, 吾送之城底而還. 令道初欲會話河陽云, 因虞候入州不果云, 夜深欲與君擇入衙共話, 伴人喻意, 則以夜深辭之, 加送妓生及酒.

25) 1551년 2월 26일. 招彦伊使歌之, 與李遇共聽, 遇去後率下下家, 與妻共聽之, 小酌焉, 夕去.

26) 1556년 윤11월 23일. 行到泉藪傍隴上, 入見兩城主, 觀獵, 驅猪逸去, 只獲一, 捕雉六十八首云云, 玄風員妻男權祐亦共參設酌, 各行酒, 風甚寒, 強飲而醉, 點心罷, 太君復行酒, 吾飲此先辭還 <중략> 妓彦伊赴彼歌之, 吾別求雉與之.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언이는 고급 예술을 구사하는 악공의 연주에 화답하는 노래, 전아한 풍류에 걸맞는 노래,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그리고 평 사냥에서와 같은 활기찬 노래 등 다양한 영역의 노래를 소화해낼 수 있었던 인물로 판단된다. 언이에 못지 않는 노래 실력을 가진 長非라는 기생도 주목된다.

- 1) 심촌 景遇의 집에 갔다. 土遇도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략> 마침 서울의 歌兒 長非 상주로부터 와서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하기에 나와서 노래하게 하고 소청했다. <중략> 長非의 琴歌는 들을 만했다. 달이 집 위로 떠오르자 주인이 나의 琴 듣기를 원하기에 연주했다. 長非가 노래로써 그것에 입히니 주인이 아름답다고 했다.<sup>27)</sup>
- 2) 土遇의 집으로 바로 갔다. <중략> 二道가 보낸 妓工이 왔는데, 露凝香, 長非, 卓文兒 등이 다투어 노래했다. 들을 만했다.<sup>28)</sup>
- 3) 남장사에 머무르다. 欽仲, 勉夫, 德門이 모두 모여 이야기했다. 저녁에 택지 통관이 와서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내 밤이 되었다. 歌婆 長非가 또한 와서 노래하게 했다. 술자리가 꺾힌 후에 이도는 다른 곳으로 자리 갔다. 노기가 나의 琴 연주를 듣기 위해서 여러 곡을 연주했고 勉夫가 함께 들었다. 밤이 깊어 이내 잤다.<sup>29)</sup>

1555년 10월에 서울의 歌兒라며 처음 등장하는 長非는 약 2달 동안에 만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성주의 관기로 선상되었다가 말미를 얻어 잠시 성주로 돌아온 것으로 추측된다. 위의 자료에서 이문건은 장

27) 1555년 10월 18일. 乃投村入景遇家, 土遇會于此共話之 <중략> 適京中歌兒長非來自尙州, 留此云, 出令歌之, 蘇聽之 <중략> 長非琴歌可聽也, 月上于屋上, 主人求聽我琴, 乃鼓之, 長非歌以被之, 主人稱佳.

28) 1555년 10월 30일. 直到土遇家 <중략> 二道所送妓工亦來, 露凝香·長非·卓文兒等爭唱, 可聽也.

29) 1555년 11월 23일. 留南長寺, 欽仲·勉夫·德門皆留話, 暮, 澤之 通判來會設酌, 夜闌乃已, 歌婆長非亦來, 使歌之, 酒罷後, 二道別宿他所, 老妓求聞吾琴, 爲鼓數曲, 勉夫同聽, 夜深乃寢.

비를 歌兒<sup>30</sup>)라 지칭하고 있으며 그녀가 상주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불러와 노래를 청할 만큼 노래로 이름이 나 있었던 기생으로 보인다. 장비는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문건의 琴 연주에 걸맞는 노래를 즉각 맞추어 부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름답다”는 극찬을 받기에 이른다. 장비의 노래는 酒宴을 위해 부수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감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예술적 감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후 이문건은 개천에 빠져 병이 나 있다는 장비에게 노래를 부르게까지 하며<sup>31</sup>) 장비의 기예에 상당한 애착을 보이고, 그가 참석하는 모든 연회에 장비가 초청되었다. 3)은 정암의 문인으로 사회를 함께 겪었던 흠중(洪奉世, 1498~1575)이 상주 목사로 부임해 오자 그를 방문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 간의 여정 속에서 개녕을 거쳐 상주의 남장사라는 절에서 기숙한 날의 기록이다. 이 기간 중 장비 역시 동행되었는데, 일정의 마지막 날은 장비의 노래와 이문건의 琴 연주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이문건이 가졌던 장비의 노래에 대한 애착은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생의 노래와는 구별되는 예술성을 감지했기 때문이며, 그것을 감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의 반영으로 생각된다.

2)는 장비가 露凝香, 卓文兒와 爭唱한 기록이며 “들음만 했다”는 이문건의 평가에서 역시 기생의 기예가 감상의 대상이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현장은 세 명의 기생이 노래 실력을 서로 경쟁하는 장이었을 것인데, 장비의 노래에 맞서는 노응향과 탁문아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노응향은 부마의 총애를 받았던 만큼 二道の 부름에 바로 응하지 않고 이도가 다시 재촉해야 했던<sup>32</sup>)

30) 장비를 또한 ‘歌婆’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歌兒는 꼭 어린 기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을 달리 이르는 용어로 판단된다.

31) 1555년 11월 16일. 歌婆長非暮來見曰, 往還朴梁山宅, 溺川傷寒, 到高靈, 病作留調, 昨日乃還 <중략> 酌酒, 酒後使歌而聽之, 傷寒餘證不平云, 不令久歌.

32) 1552년 1월 9일. 露凝香囑二道送之, 令而不來, 二道來坐而促之, 然後乃來.

도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기예의 실력 또한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 1) 선산에 아침에 도착했다. <중략> 황참군의 婢 莫壯이 와서 琴을 연주하고 김해 기생이 와서 노래했다. 露凝香이 노래하고 가야금을 연주했는데, 음악이 비록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역시 저절로 절묘했다.<sup>33)</sup>
- 2) 京上妓 卓文兒는 바늘을 바치고, 京來妓 只丹心和 露凝香 등이 와서 함께 밥을 먹었다. 露凝香이 가야금을 연주하고 卓文兒는 노래 해서 들었다.<sup>34)</sup>

1)에서와 같이 노응향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저절로 절묘한 경지를 이룬 것처럼 노련하면서도 높은 기예의 수준을 나타낸다. 유배온 이문건으로서는 각별한 행사라 할 수 있는 進士試 同榜들의 모임인 榜會를 위해 특별히 노응향이 선발되었다는<sup>35)</sup> 사실은 기생으로서의 노응향의 재능을 짐작케하는 단적인 사례다 된다. 2)에서 노응향은 지단심, 탁문아와 함께 이문건을 방문하는데, 탁문아가 노래를 하고 노응향이 가야금을 연주했다는 것은 노응향이 노래뿐만 아니라 가야금 연주에 더 뛰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기예의 수준이 높아 사대부들로부터 예술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예를 언이, 장비, 노응향, 탁문이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京妓로 장악원에 소속되어 전문적 기예를 익힐 수 있었던 까닭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京妓이

---

33) 1554년 10월 20일. 善山人朝到 <중략> 黃參軍婢莫壯亦來鼓琴, 金海妓亦來歌, 凝香歌且彈伽耶琴, 樂雖不備, 亦自妙矣.

34) 1548년 5월 25일. 京上妓卓文兒早到, 納針一封, 京來妓只丹心·露凝香等亦來, 并饋之, 令香也彈伽耶琴, 兒也歌之, 乃聽.

35) 1554년 11월 11일. 會話于禪堂, 勸元亮開素, 夜深令樂露凝香之歌, 莫壯之琴, 加以尙州妓歌, 元亮又帶張豹來, 令琴之笛之, 雜奏助歡焉, 夜半後乃罷以寢, 與元亮 壯元同宿禪堂.

면서도 뚜렷한 활동을 하지 못한 기생도 있었다. 바로 溫之이다.

二道가 나를 위해 기생을 시켜 琴歌를 하게 하고 또 溫之를 불러 노래하게 했다. 아마 일찍이 노래를 시켰으나 시원찮았으므로 특별히 노래를 명했지만 여전히 소리를 이루지 못했다. 삼순배가 돌고 나서 또 老妓를 시켜 술을 따르게 하고 少妓를 시켜 서로 노래하게 했다.<sup>36)</sup>

위의 기록에서 온지라는 기생은 노래 실력이 부족해 노래 연습을 시켰지만, 소리를 이루지 못해 대신 어린 기생들을 시켜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에 온지는 京妓로 뽑혀 선상된다.<sup>37)</sup> 京妓는 일반적으로 기예가 뛰어난 자가 선상되지만 온지는 그의 아버지가 서울에 연고가 있다<sup>38)</sup>는 편리함 때문에 선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선상된 기생은 장악원에 소속되어 전문적으로 기예를 익히기 때문에 성주로 돌아온 후에 활발한 활동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온지는 2년 후에 상주를 거쳐 성주에 다시 돌아왔는데<sup>39)</sup> 기예를 제공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아마 온지는 노래나 기악이 아닌 춤을 전문적으로 익혔던 것으로 추측된다.

- 1) 정오가 되자 坐禪堂에 모여 차를 마시다가 이어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풍악을 잡혔다. <중략> 술이 거나해지자 二道가 天澤에게

36) 1551년 2월 16일. 爲我使妓琴歌矣, 且招溫之, 使之歌, 盖曾使之歌而不肯, 故特令歌, 歌果不成聲矣, 三巡各行酒, 又令老妓行酒, 令少妓互歌之, 夜久乃辭還堂.

37) 1553년 10월 11일. 上京妓溫之持送北直領一事去, 明日事也. 1556년 2월 12일. 京妓溫之下來言, 三角山岩崩, 日變星變並見, 京中不平云云.

38) 1553년 4월 5일. 溫之父還自京, 仍將大成送簡, 知慶興安平之奇, 但龍仁 李子中去月廿一日暴逝云, 可悼可悼./1556년 12월 18일. 進奉戶長上京, 付丁監司前拙書一封, 使呈之, 李夢錫·崔巨川了簡亦付之, 溫之父亦隨去, 以吉哉·文應·孝甲等處了簡同封, 付都非使受答./1556년 1월 10일. 溫之父還自京, 傳吉哉答書, 得白曆·臘藥·朴桂封等物, 叔母氏亦有諺簡, 今八十歲也, 可慶可慶.

39) 1555년 11월 22일 聞星州妓到尙州, 欲受簡云, 必溫之也, 恨在寺相違爾. 1556년 2월 12일 京妓溫之下來言, 三角山岩崩, 日變星變並見, 京中不平云云.

춤케 하고 어린 기생을 시켜 對舞케 하여 희학으로 삼았다.<sup>40)</sup>

- 2) 朴榮祖의 宴席에 갔다. <중략> 妓工이 역시 와서 음악을 연주하고 士遇와 文義가 기거하는 집 주인과 鄭彭同이 왔다. 妓에게 對舞케 하니 참으로 奇觀이다.<sup>41)</sup>
- 3) 呂牛峯의 집에 갔다. 사위 곽모가 수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좌객으로 宋天章, 洪述之, 裴石猗, 都台輔, 熙明, 景明, 郭家, 呂沈 등이다. 妓가 처용무를 쳤는데 우스웠다.<sup>42)</sup>

1)은 천택과 어린 기생을 대무하게 하여 희학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2) 역시 잔치자리에서 기생에게 대무하게 했는데 眞奇觀이었다고 한다. 또한 아직 기예에 미숙하다할 수 있는 어린 기생들인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생의 춤은 술자리의 흥을 고취하는 데 소용되면 그만이지 고도의 기예와 격식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은 여우봉의 수연을 위해 특별히 처용무를 추었을 것인데 우스웠다고 한다. 처용무는 궁중 정재로 가면과 화려한 의상,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무용예술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방에서 공연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설령 온지가 장악원에서 춤을 전문적으로 익혔다할지라도 지방에서 그 기예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반면, 선상된 경험이 없이 성주에서만 계속 활동했던 지방기로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존재하기도 했다. 銀臺仙이란 기생인데, 은대선은 1545년 9월 28일에 유배지인 성주에 도착하여 완전히 정착하지도 못한 상태의 이문건을 방문하여 姜渾(1464~1519)이 준 시를 노래하고 간다.<sup>43)</sup> 이

40) 1553년 2월 3일. 午乃到會坐禪堂設茶 仍設酌作樂 <중략> 酒半二道令天澤起舞使兒妓丙代對舞以戲之.

41) 1554년 10월 15일. 乃赴朴榮祖宴席 <중략> 妓工亦來鼓樂, 士遇公·文義寓家主人·鄭彭同隨到, 令妓對舞, 眞奇觀也.

42) 1552년 9월 21일. 投呂牛峯宅, 奉話大之, 其女夫郭某設酌爲壽云, 座客宋天章·洪述之·裴石猗·都台輔·熙明·景明·郭家·呂沈等也, 妓奏處容舞可笑.

43) 1545년 10월 14일. 老妓銀臺仙年七十云來見, 誦姜士浩所贈詩, 辭而去.

시는 강흔이 경상도 관찰사로 성주를 순행하다 떠나며 이불도 없이 부상역 근처 객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은대선에게 준 것이다.<sup>44)</sup> 시에서 은대선은 눈같이 하얀 피부, 발그레한 얼굴에 아이같은 눈썹을 가진 절세의 미녀로 묘사되어 있으며<sup>45)</sup>, 이별의 자리에서 은대선은 곱게 단장을 하고 옥같은 손으로 피리를 연주하며 눈물을 흘리는 내용으로 이별의 정이 찡찡하게 그려져 있다. 이제 70세가 된 은대선은 젊은 시절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런 자취였을 이 시를 이문건을 찾아가 노래하기도 하고, 유배 온 이문건을 위로하는 사대부들의 사적 모임에 찾아가 보여주기도 했다.<sup>46)</sup> 이 자리에서 사대부들은 대문장가였던 강흔의 시를 감상하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한시의 전승 경로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목재일기』에서 은대선은 기생으로서 뚜렷한 행적은 보이지 않아 이때 이미 기억은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주를 대표할 만한 이력을 지닌 기생으로서 은대선은, 權應仁(1517~?)이 80세가 넘는 그녀를 만난 기록을 남긴 것<sup>47)</sup>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주 지역 사대부들의 지속적 관심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성주에서 활동한 기생들에 대해 인물별로 그 역할과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서울과 지방, 지방과 지방으로 오가며 활발하게 교류했던 양상을 또한 『목재일기』에서는 자세하게 전한다.

44) 姜晉川渾按嶺南時 鍾情於星州妓銀臺仙 一日自星巡向列邑 午憩於扶桑驛 驛乃州之半程 故妓亦隨往 至暮不忍別去 仍宿于驛 <중략> 蓋寢具已送于開寧 未及取還 故無衾而宿也. 『遣閑雜錄』 沈守慶 撰, 『국역대동야승』Ⅲ, 민족문화추진회, 1973, 136면.

45) 姑射仙姿玉雪肌 曉臆金鏡畫蛾眉 卯酒半酣紅入面 東風吹鬢綠參差. // 雲鬢梳罷倚高樓 鐵笛橫吹玉指柔 萬重關山一片月 數行清淚落伊州. 姜渾, 『木溪先生逸稿』 卷之一 詩 銀臺仙 二首 <星州妓> a\_017\_163d.

46) 1545년 12월 5일. 李支天·李剛中謁牧使出來, 共往西卜家, 設酒肉慰我, 各行酒又巡酒, 老妓銀臺仙持姜混所贈詩來示之, 佳作也, 饋酒, 暮乃罷還寓家休之, 老妓來辭去.

47) 僕逮見其妓年踰八十 自言綠參差今變爲白參差矣 泫然泣下. 『松溪漫錄』 上, 權應仁 撰, 『국역대동야승』 XIV, 민족문화추진회, 1973, 43면.

- 1) 京妓 卓文兒가 와서 함안, 진주 목사의 요건을 얻어 상경할 양식을 구했다.<sup>48)</sup>
- 2) 어제 妓 叔之가 상경하면서 여주 목사에게 양식을 구하는 편지를 구하기에 써서 보냈다.<sup>49)</sup>
- 3) (성주에서) 영도가 또 密陽 老妓를 불러 琴을 연주케 했다.<sup>50)</sup>
- 4) (성주에서) 尙州妓 終哥가 와서 노래했다.<sup>51)</sup>
- 5) (선산에서) 황참군의 婢 莫壯이 와서 琴을 연주하고 김해 기생이 와서 노래하고 응향이 노래하고 가야금을 연주했다.<sup>52)</sup>
- 6) (대둔사에서) 밤이 깊자 노응향의 노래, 막장의 琴을 즐기게 했다. 상주 기생의 노래를 더했다. 元亮이 또 張豹를 데리고 왔기에 琴을 연주하게 하고 피리를 불게 하며 잡다하게 연주하여 즐거움을 도왔다.<sup>53)</sup>

1)과 2)에서는 京妓 卓文兒와 地方妓 叔之가 선상되어 서울로 갈 때 필요한 양식을 각 목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여러 京妓들은 살펴본 바와 같이 선상기들은 상경하면서 거쳐 가는 지역에서 자신의 음악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역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돌아오는 상황도 같았을 것이다. 서울과 지방 사이의 음악 교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상경기들은 궁중의 연회에 소용되어 궁중 연회의 음악을 익힐 수 있기도 했지만, 서울의 음악을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永川君 定은 孝寧大君의 아들인데, 그 부인은 우리 문중에서 왔으므로 서로 친히 지냈다. <중략> 일생을 주색에 빠져서 鄉妓가 처음으로

48) 1546년 6월 9일, 京妓卓文兒來受咸安·晋州牧了簡, 求上京糧也.

49) 1553년 2월 11일. 昨日叔之妓上京, 求驪州牧了索糧簡, 書付之.

50) 1556년 9월 9일. 令道又招密陽老妓鼓琴.

51) 1555년 1월 16일. 尙州妓終哥來歌.

52) 1554년 10월 20일. 黃參軍婢莫壯亦來鼓琴, 金海妓亦來歌, 凝香歌且彈伽伽琴.

53) 1554년 11월 11일. 夜深令樂露凝香之歌, 莫壯之琴, 加以尙州妓歌, 元亮又帶張豹來, 令琴之笛之, 雜奏助歡焉.

뽑혀서 서울에 오면, 공은 집으로 맞아다가 의복을 잘 차려 입혔으며, 곧 젊은 사람들이 유인하여 도망해도 또한 찾지도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평생에 잘되게 해준 사람이 그 수를 모를 정도이고, 집안 계집 중은 모두 악공을 불러 시집을 보냈다. 한 병 술을 얻더라도 풍악이 뜰에 가득하여 매일 취했다<sup>54)</sup>

위의 기록은 효령대군의 아들인 永川君(1422~?)이 地方妓가 서울에 오면 거두어 들였으며, 그의 집에는 언제나 풍악이 가득했다는 것이다. 서울에 뚜렷한 연고가 없이 상경한 地方妓들은 영천군과 같은 이들의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일부는 그들의 첩이 되거나 歌妓가 되기도 했을 것이고, 일부는 그들의 역을 끝내고 다시 소속 지역을 돌아갔을 것이다. 이러한 사대부의 기생 점유는 17세기 초반까지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었는데<sup>55)</sup>, 왕실이나 사대부가에서 기거를 하면서 地方妓들은 그들의 기예를 제공하기도 하며 서울의 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지방기들이 장악원 기생으로 꾸준히 선상됨으로써 서울의 고급 음악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들이 본읍과 서울로 왕래하면서 또는 본읍으로 복귀함으로써 경향간의 예술적 교류를 가능케 한 것으로 짐작된다.

3)이하는 지방간의 교류가 나타난다. 3), 4)는 각각 밀양, 상주 기생이 성주에 와서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5), 6)에서는 기생들만의 교류가 아닌 聲婢, 악공과의 교류도 확인할 수 있다. 5)는 김해 기생, 성주 기생, 성비가 6)은 상주, 성주의 기생과 성비와 성주 악공이 함께 연주하는 모습이다. 5)의 황참군은 여러 명의 성비를 양성한 인물인데, 이 성비 중

54) 永川君定 孝寧大君之子 其夫人出於吾門 故與之相從甚厚 爲人豪宕不羈 性又純謹 每事徑情直行 詩思清新 畫格亦奇 一生沈於酒色 鄉妓初以選到京 公邀致其家 盛飾衣服 未幾爲年少所引而逃 亦不尋問 故平生作成 不知其數 家中女僕則盡招樂工 而嫁之 雖得一壺酒 絲竹闌於庭 日日沈醉 成倪, 『備齋叢話』 권4, 『국역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1971, 599면.

55) 강명관, 앞의 논문, 152면.

가장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莫壯과,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응향과 김해 기생들의 높은 예술적 기예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음악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저절로 절묘했다란 것은 이미 그들 사이에 일정한 음악적 교류가 이루어져서 공동의 레퍼토리를 지니고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 2) 악공의 경우

『목재일기』에서는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없는 지방 악공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전하고 있어 특별히 주목된다. 기생이 官婢였듯이, 지방 악공의 신분은 官奴였다. 악공 역시 기생과 마찬가지로 教坊에서 양성하고 관리했다.<sup>56)</sup> 하지만, 기생은 기억에만 충실했던 것과는 달리, 악공은 평소에는 관노로서 官屯田의 경작을 비롯한 소정의 奴役に 종사하다가 교방의 필요에 따라 이들 중에서 악공으로 차출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일기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1) 官奴 業山이 와서 삼색 나물을 바치고 갔다.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sup>57)</sup>
- 2) 吹笛人 業山이 파의 짝을 가지고 왔다.<sup>58)</sup>
- 3) 吹笛 介가 와서 겨울 오이를 바치며 유향소에게 속목을 감독하는 일을 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sup>59)</sup>
- 4) 州의 妓生 玉只, 臺月, 雲英, 叔德, 叱同代, 丙代와, 吹笛 卜成, 金石 등은 어제 출발하여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sup>60)</sup>

56) 이처럼 기생 뿐만 아니라 악공도 교방에서 관리했다는 사실은 『목재일기』의 다 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54년 12월 27일. 權子效送簡, 欲得首飾妓及歌妓 吹笛云云, 送喻教坊使定送, 昨日已白牧使前行下故也.

57) 1545년 10월 13일. 官奴業山來謁, 納菜味三色, 隣居者也.

58) 1545년 11월 10일. 吹笛人業山持遺蔥芽.

59) 1551년 11월 21일. 吹笛介來納冬瓜, 求囑留鄉所前休督贖木事.

60) 1553년 3월 3일. 州妓玉只·臺月·雲英·叔德·叱同代·丙代, 吹笛卜成·金石 등, 昨日出來云留此矣.

- 5) 安奉寺의 중이 와서 말하기를 이십일 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지경인데, 瓦木手 卜成을 官方에서 데려가는 것은 좀 늦추어 주기를 부탁했다.<sup>61)</sup>
- 6) 吹笛을 구하여 冊絲를 묶게 했는데, 呂孫이 와서 그 일을 하러 왔다. 술을 먹이고 청어 20마리를 주었다.<sup>62)</sup>

業山이라는 인물에 대해 1)에서는 官奴라 했고, 2)에는 吹笛人이라고 했으니 업산은 성주의 악공이다. 그런데, 업산은 이문건의 이웃집에 살면서 이문건에 채소와 나물을 바쳤다고 했다. 이는 업산의 평소 직분이 관둔전을 경영하는 농삿일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3)에는 吹笛을 맡은 介라는 악공의 평소 소임이 유향소의 贖木 관리였음을 알 수 있다. 4)에서는 대구 부사의 행차를 맞이하기 위해 동원된 妓工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취적을 맡은 卜成이라는 악공이 등장한다. 5)에서 이 복성의 평소 노역은 瓦木手임을 알 수 있고, 안봉사라는 절에 기와를 입히는 일을 하는 도중에 교방에서 악공으로 차출해 가는 바람에 그 일이 어렵게 된 사정이 드러나 있다. 6)에서는 呂孫이라는 취적인이 책사를 묶는 부역에 차출되고 있다. 여손은 성주 관노인데,<sup>63)</sup> 교방에는 취적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면서도 이문건의 잡무를 처리하기 위해 차출되었고, 이문건은 여손에게 그 수고에 대해 음식과 물품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 악공들은 평소에는 생업이나 부역으로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악공으로서의 부역까지 겸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생과 마찬가지로, 악공의 주된 임무는 관원들의 행차나 연회에 동원되어 음악을 제공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악공은 단독으로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기생과 동반되었다. 기생과 악공이 함께 동원

61) 1553년 7월 16일. 安峯僧來言, 廿日造泡間, 盖瓦木手卜成, 官方推捉, 請緩云云.

62) 1552년 1월 14일. 求吹笛, 使合束冊絲, 呂孫來役, 饋酒給青魚廿介.

63) 1546년 12월 10일. 官奴呂孫·徐卜及曷乎未等來告去.

되었기에 『목재일기』에서는 이들을 묶어서 표현한 妓工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兩遇 令公의 편지를 보니 오늘 村會가 열리니 가능하면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했다. 승낙을 하고는 가니 村老와 자제 등 여러 사람들이 林亭에 모여 있었다. 이 모임을 위해 각자가 果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안주가 무척 좋았고 술 역시 넉넉했다. 妓工을 불러 歌樂을 연주하면서 종일토록 술을 마셨다. 해질 무렵에 나 역시 行酒를 하고는 土遇와 함께 일어나 춤을 추었다. 어두워져서야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sup>64)</sup>

兩公, 즉 景遇와 土遇 형제가 주최한 마을 행사에 이문건이 초대되었다. 林亭이라는 정자에서 村老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술자리가 베풀어져서 종일토록 술을 마셨다는데, 이런 자리에 妓工을 동원하여 歌樂을 행하게 했다. 이들 기생과 악공이 제공했다는 가악이란, 기생은 노래를 부르고, 악공은 거기에 맞추어 악기를 연주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악공이 연주한 악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인데, 『목재일기』에는 여기에 대해 풍성하면서도 명확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 1) 兩遇 令公이 편지를 써 보내기를, 초 2일에 立岩에 놀러 가는데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笛工과 歌妓를 거느리고 올 수 있는지를 물어 왔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장했다.<sup>65)</sup>
- 2) 식후에 大浦에 사는 李勃의 집에 가니 兩遇 令公이 이미 와 있었다. 주인이 성찬을 베풀었는데 술과 안주가 맛있었다. 종일토록 술을 마셨으니 나 또한 行酒를 했다. 州의 妓工이 와서 음악을 연주

64) 1554년 9월 10일. 兩遇令公書示, 村會今日爲之, 可卽來會云云, 諾而赴之, 村老及子弟等餘人共集林亭矣, 各備果盤爲會云, 肴羞甚佳, 酒亦不竭, 召妓工奏歌樂, 終日酬酢, 日落吾亦行酒, 與土遇起舞, 乘昏辭還.

65) 1557년 3월 30일. 兩遇公遺書喻, 初二日往遊立石, 可以偕往, 且率笛工歌妓云, 答以如約.

했다. 해가 저서야 마치고 돌아왔다. <중략> 어제 風物絃 6條와 吹笛 2人을 오게 한 일은 士遇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sup>66)</sup>

- 3) 曹鈞, 池世淸, 世涵 등이 南亭에 와서 모였다가에 나도 역시 올라가서 만났다. 鈞과 장기를 두는데 州의 사람이 酒肴를 가져왔기에 함께 먹었다. 또 淸과 장기를 두었는데 모두 적수였다. 州의 사람이 제공한 점심을 함께 먹었다. 내가 다시 行酒를 하니 妓工이 琴笛을 울렸다.<sup>67)</sup>
- 4) 오늘은 아내의 생일이다. <중략> 翰林 房妓 4,5명을 불러 琴歌를 행하게 했는데, 笛奴 또한 와서 바깥에서 피리를 불었다.<sup>68)</sup>

1)에서 알 수 있듯이, 立岩이라는 경승지에 놀러가는 데 그곳에 笛工과 歌妓가 동원되었다. 그리하여 歌妓가 노래를 부르면 笛工이 여기에 피리 반주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연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妓工이 동원된 자리에서 사대부들이 歌樂을 향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런데, 2)에서는 李勃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베풀어진 酒宴에 妓工이 노래 없이 음악만 연주했다고 했다. 이문건을 이 酒宴을 위해 전날 風物絃 6조와 吹笛 2인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다. 吹笛은 笛工의 다른 말이고, 風物絃은 현악기를 연주하는 絃色妓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날 妓工들이 연주한 음악은 기생의 다양한 현악기와 악공의 피리가 어우러진 합주 형태였을 것이다. 3)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다시 확인된다. 南亭에서 베풀어진 주연에서 妓工이 琴笛을 행했다고 했는데, 이는 기생은 琴을, 악공은 笛을 각각 맡아서 연주했음을 의미한다. 4)에서는 한림

66) 1553년 10월 15일. 食後赴大浦居李勃家, 則兩遇令公已到矣, 主人設盛饌, 酒美肴嘉矣, 終日酬酌, 吾亦行酒, 州妓工來奏樂, 日沒罷還. <중략> 昨日合風物絃六條吹笛二人來事, 爲士遇爲之.

67) 1560년 3월 22일. 曹鈞·池世淸·世涵等來集南亭, 吾亦上會, 與鈞爲將棋, 州人呈酒肴, 共飲之, 又與淸着將棋, 皆敵手也, 州人共點心, 共食之, 吾復行酒, 妓工爲琴笛.

68) 1555년 8월 21일. 今日荊布生辰也. <중략> 招翰林房妓四五名, 令奏琴歌, 笛奴亦來吹之於外, 各行酒, 以壽于妻, 妻亦答禮.

들의 房直 임무를 맡은 기생들이 이문건의 아내 생일에 동원되어 琴歌를 담당했고, 이와는 별도로 笛奴들이 동원되어 피리를 연주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기생은 琴과 노래를 아울러 행했는데 비해, 笛奴로 표현된 악공은 피리 연주에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기생은 재능이나 직분에 따라 노래나 현악기 연주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악공은 피리 연주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기생이 피리 연주를 맡아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까지 감안한다면, 지방 악공들은 피리 연주를 전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기에서는 樂工이라는 명칭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笛工, 笛奴, 吹笛 등의 명칭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笛工으로서 관심을 끄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呂千終을 들 수 있다. 그는 성주의 관노로서 笛과 통소 연주에 뛰어났는데,<sup>69)</sup> 이문건이 각별히 아껴서 이들의 관계는 1548년에 시작되어 1567년까지 근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음이 일기에서 확인되며, 그 속에서 千終의 행적을 점검해 볼 수 있다.

- 1) 금산 군수의 奴子가 千終에게 笛을 배우는 일로 왔다고 했다.<sup>70)</sup>
- 2) 교관 정수부가 말을 보냈기에 저녁에 가서 만나 청에 들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자리를 베풀게 했다. 千終을 불러 笛을 불게 하고, 房直을 내어 琴을 타게 했다.<sup>71)</sup>
- 3) 조대요가 저녁에 왔는데, 주효를 가지고 왔고, 業山을 데려 왔다. 또한 千終을 불러 그들이 연주하는 琴笛을 들었다. 술자리를 파하고 나의 琴 연주를 듣고자 하기에 이에 연주했다.<sup>72)</sup>
- 4) 저녁에 통관 이덕창이 왔기에 잠시 술자리를 베풀었다. 안동의 老

69) 1548년 1월 7일. 召致千終吹笛及洞簫□□聽也.

70) 1548년 1월 6일金. 山倅奴子習笛于千終事來云.

71) 1552년 8월 12일校. 官鄭壽夫送馬, 夕往見之, 入話于廳, 爲設酒食, 招千終吹笛, 出房直彈琴.

72) 1548년 1월 16일. 趙大要昏到, 將酒肴來餉, 且率業山, 又召千終, 聞其行琴笛, 酌已求聽吾琴, 乃鼓之.

妓로서 琴에 능한 자가 관에 왔기에 불러 내어 연주케 했는데 들을 만했다. 笛工 千終이 서울에서 내려 왔다기에 이곳에 오자 笛을 불게 하여 들었다.<sup>73)</sup>

- 5) 科현을 넘어 개령으로 들어가니, 수령이 나와서 작은 술자리를 열었다. 千終을 시켜 笛을 불게 하고 이를 듣고는, 다시 마주앉아 술과 대화를 나누었다. 밤이 되자 주인이 관에 들기를 청하기에 방에 들어 왔다. 千終이 청리에 있는 숙소에서 아침 일찍 왔기에 함께 갔다.<sup>74)</sup>
- 6) 樂工 千終이 숙강의 편지를 전해와 무사한지 알았다. <중략> 성전에서 보내온 玉笛을 불게 했더니, 笛의 품질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sup>75)</sup>

1)에서 알 수 있듯이, 千終의 피리 연주 실력은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 있어서, 성주와는 꽤나 거리가 있는 금산에서 군수가 관노를 파견하여 천종에게 배우도록 할 정도였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천종의 개인적 재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방 악공들 간의 기예 전수와 습득의 경로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2)에서는 성주 교관 정수부와의 술자리에 천종이 특별히 불려와 정수부의 房直妓와 함께 琴笛을 합주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3)에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傭산이라는 관노와 함께 천종이 琴笛을 합주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둘다 笛工임에도 불구하고 琴笛 연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둘 중 누군가가 琴을 연주했다고 볼 수 있는데, 傭산은 본업이 농사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천종이 琴을 연주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천종은 笛과 통소와 함께 琴의 연주까지 가능

73) 1555년 11월 19일. 昏通判 李德昌來見, 乃斲設酌, 安東老妓能琴者到衙, 呼出鼓琴, 可聽也, 笛工千終自京下來云, 到此, 令吹笛而聽之.

74) 1555년 11월 25일行. 踰瓜峴, 投開寧, 主倅來會小酌, 令千終吹笛聽之, 復對飯坐話, 到夜請主人入衙, 乃入房住宿. 千終早及於清里宿處, 偕行.

75) 1558년 9월 1일. 樂工千終來傳叔強書問, 知無事, 令試吹成川來玉笛, 笛品不惡云云.

할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출중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이문건에게 琴 연주를 들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 천종의 琴 연주 실력은 笛에 비해 그리 뛰어나지는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4)에서는 이덕창과의 술자리에서 琴에 능한 안동 노기와 笛에 능한 천종이 초대되어 합주를 했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안동의 노기는 성주 관아로 파견되어 왔고, 천종은 서울로 파견되어 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이다. 안동의 노기든 성주의 천종이든 둘 다 그 지역 관아에 예속된 관노비였기에 관의 명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기도 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에서는 이문건이 타 지역을 여행할 때 천종이 계속 수행하면서 사족들의 술자리에 동석하여 笛을 연주하고 있다. 이러한 타 지역과의 교류 속에서 천종은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유명세를 떨쳐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결과, 6)에서 알 수 있듯이 천종은 樂工이라는 호칭을 달고 등장하게 된다. 천종의 호칭이 笛工에서 樂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천종이 장악원의 악공으로 발탁되어 서울로 올려 보내졌음을 의미한다. 6)의 자료는 천종이 장악원에 소속되어 악공으로 복역하다가 휴가를 얻어 고향인 성주로 돌아오는 길에 충청도 홍성의 목사로 있던 이숙강이 이문건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받아 오게 된 사연을 전하고 있다. 천종은 이로부터 석 달 보름 뒤에 이숙강 앞으로 보내는 이문건의 답장 편지를 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sup>76)</sup>

성주 관노 출신인 천종의 이러한 행적을 통해 지방 악공의 역할과, 지방 악공이 장악원의 악공이 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 악공의 호칭은 笛工이나 吹笛으로 불린 데 반해, 이들이 장악원에 배속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樂工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음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문건이 지방 악공을 악공이라 하지 않은 이유는, 궁중의 음악을 담당하는 장악원의 악공들은 여기에 소용되는 다양한

76) 1558년 12월 16일. 樂工千終來辭上京, 書答于叔強氏, 付傳.

관현악기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연주하거나 복수의 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sup>77)</sup> 지방 관아에서는 악공들은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笛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 악공들이 모조리笛만 연주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성주에는 琴을 연주한 악공이 없었지만, 尙州에는 있었기에 이문건은 상주 목사에게 琴工의 성주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sup>78)</sup> 張豹는 상주의 악공으로서笛은 물론이지만, 琴의 연주에도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이었다. 성주 목사의 해인사 유람 행차에 동원되었다가 성주로 함께 돌아와 10여일을 이문건의 집에 머물면서 성주 관원과 사족들의 부름에 응하여 琴을 연주했던 장표의 행적이 이문건의 일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1) 여화경의 집에서 玄琴을 가져와서 豹에게 치게 했더니, 잘 쳤다.<sup>79)</sup>
- 2) 성주 앞으로 간을 보내 교관과 함께 남정에서 豹의 琴 연주를 듣고자 하니 주효와 쌀을 보내주기를 알리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해 왔다. 식후에 걸어서 남정에 오르면서 豹에게 琴을 가지고 따라 오라고 했다. 길에서 교관을 만나 함께 올라 갔더니 주의 사람이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누워서 쉬고 있는데, 金大寶, 李景明, 裴振綱, 李友膺이 뒤이어 도착했다. <중략> 다투어서 豹의 음악을 들으며 즐거워했다. 기생 역시 많이 모여 노래를 불렀다.<sup>80)</sup>
- 3) 아침에 술병을 들고 목백을 만나러 갔다. 執蠹을 하면서 받아들이 역병에서 호전된 것을 축하해 주었는데, 거천 역시 같이 마셨다. 張豹를 데리고 가서 琴을 연주케 했는데, 彦伊가 노래로 화답하면

77) 궁중의 각종 행사에 실제 음악을 담당했던 장악원의 악공이 성종 대에 우방 악공만 무려 572명이었고, 악기의 종류는 26종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98, 241-5면 참조.

78) 1556년 1월 8일. 尙牧前簡求琴工, 州人往傳.

79) 1552년 4월 18일. 取呂和卿家玄琴來, 令豹鼓之, 善鼓矣.

80) 1552년 4월 21일. 城主前簡告, 欲與校官聽豹琴于南亭, 須分酒肴·飯米之意, 答以如示. 食後步上南亭, 令豹持琴以隨, 路遇校官共上, 州人設席矣, 臥休之, 隨到者金大寶·李景明·裴振綱·李友膺也, <중략> 爭聽豹樂爲樂焉, 妓生亦多集以歌之.

서 내 귀를 즐겁게 했다.<sup>81)</sup>

- 4) 정오에 향교의 루에 가서 수부와 치원 등과 함께 張豹의 琴歌를 들었다.<sup>82)</sup>
- 5) 張豹가 향교에서 연치로 왔기에 내가 短琴과 伽倻琴 등을 보내 이를 타게 해서 들었다.
- 6) 張豹가 돌아가고자 했다. 이도에게 들러 작별 인사를 하고 쌀 한 말을 얻었다고 했고, 또 향교에 가서 인사를 했더니, 정수부가 머물게 했다고 했다. 수부가 短琴을 빌려서 갔다.<sup>83)</sup>

이문건은 장표의 琴 연주에 무척 매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에서 보듯이, 성주 사족인 여화경의 玄琴을 애써 빌려와 장표에게 치게 하고는 감탄하고 있다. 장표는 玄琴 뿐만이 아니라 短琴과 伽倻琴까지 다룰 수 있을 정도로 현악기 연주에 조예가 깊었음을 5)에서 알 수 있고, 4)에서는 琴 연주와 함께 노래도 곧잘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에서는 오로지 장표의 琴 연주를 듣기 위해 남정에서 자리를 마련하고는 여러 사족을 초청하고 기생까지 동원해 장표의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했다. 이때 장표의 연주를 사람들이 다투어 들었다고 했으니, 충분히 장표의 연주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3)에서는 성주 목사를 방문하는 자리에 장표를 대동해 가서 琴을 연주케 하고, 관기 언이를 시켜 노래로 화답케 하면서 귀가 즐거웠다는 표현으로 장표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6)에서는 다시 상주로 돌아가기 위해 인사하러 온 장표를 향교 교관인 정수부가 그의 연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못 가게 붙잡아 둘 만큼 성주에서 장표가 누린 인기가 대단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琴工으로서의 장표가 누린 이러한 인기는 笛工인 천종에게서는 찾아

81) 1552년 4월 23일. 朝持壺酒, 投見牧伯, 執盞賀胤好行疫, 巨川亦共酌, 率張豹使奏琴, 彦伊歌而和之, 可悅吾耳也.

82) 1552년 4월 27일. 午投鄉校樓, 與壽夫·致遠等聽張豹琴歌.

83) 1552년 4월 25일. 張豹欲歸, 入辭二道得一斗米, 又往辭鄉校, 見留於壽夫云. 壽夫借短琴去.

볼 수 없었다. 이는 笛에 비해 琴의 연주가 지니는 예술적 가치를 당시 사대부들이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笛은 기생의 노래 반주로 소용되면서 단순히 연석의 흥취를 조장하는 방편으로 삼았을 따름이지 예술적 감상의 대상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기생의 琴 연주를 통해서만 맛볼 수 없었던, 남성 연주자가 내는 독특한 음색과 경지를 장표는 연주할 수 있었기에 성주 사족들이 장표의 연주를 다투어가며 듣는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劉枝孫이라는 인물 역시 장표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 1) 이경초가 저녁에 다시 찾아 왔다. 風流人 枝孫을 거느리고 왔기에, 琴을 타게 하고 또한 伽倻琴을 타게 하면서 이를 들었는데, 善手였다.<sup>84)</sup>
- 2) 상주의 목사 원량이 글로 묻기를, 伽倻琴을 빌려 枝孫의 연주를 듣고 싶는데, 가벼운 것을 보내니 무거운 琴을 빌리고자 한다고 했다. 아끼는 것이라 보내지 않았다.<sup>85)</sup>
- 3) 琴人 枝孫이 상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며 들렸다. 伽倻琴을 치게 하고 이를 듣고는 양식 두 말과 종이 두 묶음을 주어 보냈다.<sup>86)</sup>

枝孫은 창녕의 관노인데,<sup>87)</sup> 그 지역 사람인 이경초가 일로 상주로 가는 길에 성주에 들렀는데, 이때 지손을 대동한 것으로 보인다. 1)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손은 이문건의 집에서 琴과 가야금을 연주했는데, 이문건이 이를 듣고는 善手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아 지손은 현악기, 그 중에서도 가야금 연주에 특출한 재능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에

---

84) 1553년 11월 7일. 李景初夕復來見, 率風流人枝孫來, 令彈琴及伽倻琴聽之, 善手也.  
 85) 1553년 11월 22일. 尙牧元亮書問, 借伽倻琴, 欲聽枝孫彈云, 送輕者求借重琴云, 惜而不送焉.

86) 1554년 1월 12일. 琴人枝孫自尙州還家云歷見, 令彈伽倻琴聽之, 給糧二斗, 遺紙二束以送.

87) 1556년 4월 7일. 昌寧奴枝孫來此.

서는 상주 목사가 지손의 가야금 연주를 듣기 위해 일부러 제법 멀리 떨어진 성주의 이문건에게 가야금을 빌리고자 했다. 상주에도 교방이 있었으니 가야금은 얼마든지 있었겠지만, 상주 목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기생들이 평소에 연주하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문건이 소장하고 있는 무거운 가야금이었던 모양이다. 재미있게도 이문건은 빌려주기 아깝다는 이유로 상주 목사의 부탁을 거절해 버린다.

이처럼, 장표와 지손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琴을 연주할 능력을 갖춘 남성 연주자들을 사대부들이 특별히 예우했다는 점이다. 지손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風流人과 琴人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부터 특별대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로지 이들의 琴 연주를 듣기 위해 별도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은, 남성 연주자들의 琴 연주가 단순히 흥취 고양의 목적보다는 예술적 감상의 목적으로 주로 향유되었음을 의미한다. 琴은 꾸준히 사대부들로부터 고급예술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면서 이미 높은 수준의 예술적 기대치가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사대부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琴이 지니는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기예를 습득하고 숙련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琴 연주에서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자면, 각종 연회에 불려 다니면서 유흥을 조장할 목적으로 음악을 제공하는 데 급급한 기생으로서의 역부족일 수 있다. 상주의 笛工으로서 본래 피리 연주를 담당했던 장표나, 창녕의 관노에 지나지 않는 지손이 琴 연주에 일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얻어낸 예술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노비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로부터 일정한 예우와 물질적 보상을 받게 되었으니, 이들로서는 출세를 위한 방편으로서 琴 연주의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목되는 인물이 鄭希文과 金守種이다. 먼저 鄭希文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무송 군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鄭希文이 주에 당도했다는 말을 듣고는 불려서 보았다. 監司의 中房 소임을 맡아 내려오게 되었고 했다. 琴을 연주케 하여 들었다. 이도와 함께 밥을 먹고 상을 물리니 벌써 황혼이었다. 영도가 또한 모임에 와서 希文의 琴을 들었다. 琴이 오묘한 경지에 들었다.<sup>88)</sup>

鄭希文은 장악원의 악공인데, 이문건은 정희문이 감사의 중방 임무를 맡아 성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곧바로 그를 접견케 하고는 琴 연주를 청해 듣는다. 그리고 그의 연주에 대해 오묘하다면서 극찬의 평가를 내렸다. 그만큼 정희문의 명성과 琴 연주 실력은 사대부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문건의 일기에서 정희문과 관련한 기록은 한 차례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자료들에서 그의 정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 1) 世宗大王이 음악을 바로잡았는데 후세에 와서 음이 잘못되고 品式이 틀려 雅樂이 산실되었다. 尹春年이 朴民獻과 趙晟, 伶人 鄭希文과 더불어 폐이해진 것을 정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묘악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范蔡의 학을 알지 못하니 화평한 음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sup>89)</sup>
- 2) 鄭習讀으로 평생을 살다가 명이 다해 황천으로 돌아갔으니 正聲이 이제 사라졌으니 앞으로 어찌 될거나.  
내가 비록 음률을 알지 못하나 琴을 배우데는 평소 관심이 있어 일찍이 어른들의 말을 들으니 세상에 절대 경지의 예술은 둘이 있을 수 없다고 하네  
梨園에는 술한 악공들이 있으나 다들 다투어 繁艷을 표방할 뿐이라서  
高絶의 음악은 廣陵에서 사라지니 지금의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다네.

88) 1548년 5월 16일. 見茂松守叙之, 聞鄭希文到州, 邀見之, 作監司中房下來云, 取琴聽之, 二道對飯而撤, 日已昏矣, 令道亦來會, 聽希文琴, 琴入妙矣.

89) 『명종실록』, 명종 8년 윤3월6일. 종경청을 정파하지 말도록 하다.

늦게야 滄洲의 늙은이를 알았으니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律呂에 통달하였네.

한 두 차례의 연주에도 그 眞味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시원하였고, 허공으로 울려 퍼지는 음악소리는 정교하면서도 웅장하였네.

사람됨이 자못 완고하여 가만히 스스로 양성하길 좋아해서

문밖에 많은 악공들이 배우고자 기다려도 억지로 시키지는 않았고 한때 典樂 자리가 비어서 瑞原君이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네.<sup>90)</sup>

- 3) 公은 평생에 琴 연주를 즐겼는데, 유독 古調를 좋아해서 세속의 繁曲이나 亂音에 섞이지는 않았다. 西郭 蔡同福과 함께 琴에 대해 토론하면서 누린 相得의 즐거움은 높이 살 만했다. 蔡君은 姜子久에게서 古調를 얻었고, 姜子久는 德信公子에게서 얻었고, 公子는 鄭希文에게 얻으면서 자못 古音을 전했다.<sup>91)</sup>
- 4) 赤松琴은 우리집에서 가장 오래 된 것이다. 先公께서 항상 鄭希文의 古調를 연주하기를 좋아했는데, 그것을 동방의 正音이라고 칭송했다. 그의 제자 李壽鍾이 이를 新曲으로 바꿈으로서 후세에 전하지 않게 되었다.<sup>92)</sup>

1)에서 알 수 있듯이 명종 6년(1551년)에 세종 때 박연이 제정한 아악이 세월이 지나면서 흐트러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별도로 종경교정청을 설립하여 책임자를 윤춘년으로 정하고 박민헌, 조성 등의 관리와 함께 장악원 악공이었던 정희문이 실무 작업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는 정희문이 당시 장악원 악공들 중에서도 음악적 소양과 능력이 출중했고,

90) 平生鄭習讀 近卜就黃壤 正聲今則亡 後來將安放 吾雖不解音 學琴在素嚮 嘗聞長老言 絕藝世莫兩 梨園多衆工 繁艷爭標榜 高絕廣陵散 不取時人賞 晚識滄洲老 律呂窮指掌 爲鼓一再行 眞味劇枝癢 吹噓送朝天 精詣資曠蕩 爲人性頗介 袖手愛自養 候門多伶人 致之亦不强 于時缺典樂 瑞原招不往 朴枝華, 『守庵先生遺稿』 卷之一 詩 <挽鄭希文> a\_034\_117a.

91) 公平生喜鼓琴 篤好古調 不雜世俗繁曲亂音 與西郭蔡同福論琴 其相得之樂 亦可尙 蔡君得古調於姜子久 姜子久得於德信公子 公子得於鄭希文 頗傳古音. 許穆, 『記言』 別集 卷之八 序 <李唐津琴譜序> a\_099\_061d.

92) 赤松琴 爲吾家有最舊 先公常樂彈鄭希文古調 稱之曰 東方正音 其弟子李壽鍾 變新曲 後世無傳焉. 許穆, 『記言』 卷之六十七 <鏡銘> a\_098\_492c.

이를 널리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는 朴枝華(1514~1592)가 정희문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輓詞의 일부인데, 그의 삶을 이해하는 도움을 준다. 종9품에 해당하는 習讀의 관직을 역임했고, 정6품에 해당하는 典樂의 관직에 오를 기회까지 주어졌던 것으로 보면 보아 노비 신분은 아니었다. 당대 최고의 예인으로 평가받으면서, 술한 악공들이 정희문의 琴 연주를 배우기 위해 찾아 왔다고 했으니 악공으로는 크게 출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희문의 음악은 당시의 유행 음악이 추구했던 빠르면서도 화려함을 갖추지는 않아 그리 인기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에서 알 수 있듯이 정희문의 음악은 古調의 始祖로서 소수의 애호가들로부터 추앙되었다. 蔡同福, 姜子久, 德信公子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어지는 고조의 계보에서 정희문은 가장 윗자리에 위치한다. 이 기록을 남긴 許穆(1595~1682)의 생애를 고려해 보면 정희문이 활동한 지 백 여년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의 위상과 음악적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허목이 남긴 또 다른 기록인 4)에 따르면, 정희문의 제자인 李守種<sup>93)</sup>이 스승의 음악을 새롭게 바꾸어버림으로써 고조의 단절이 초래되었다고 했다. 이수종은 스승에게서 배운 음악을 버리고 자신이 새롭게 음악을 만들어내서 이를 세상에 유행하게 한 장본인인 셈이다. 이 이수종과 관련된 기록이 『목재일기』에 제법 많이 보인다.

- 1) 아침을 먹고 이내 남정에 올라 흑서를 피하고 있는데, 琴人 李守種이 엇그제 상아에 도착했다 고 했다. 불러 오게 하니 短琴을 가지고 이르렀다. 치라고 하니 과연 新聲을 능숙하게 익혀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했다. 함께 점심을 먹고 머물면서 琴을 탔다. 마침 이희명 형제가 와서 다시 琴을 들었다.<sup>94)</sup>

93) 이수종은 자료에 따라, 壽鍾, 守種, 首種 등으로 이름의 한자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정확상 모두 동일 인물임이 확실하다.

94) 1552년 6월 29일. 朝食, 乃上南亭以避酷暑, 琴人李守種昨昨到上衙云, 召之來, 持短琴而至, 使鼓之, 果能習新聲, 悅人耳也, 共午飯, 留彈之, 邀得李熙明兄弟來會,

- 2) 아침을 먹고 남정에 올라 상쾌함을 취했다. 오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 장막을 치고 앉았다. 李守種을 오라 청하여 함께 바둑을 두었는데 적수다. 겸하여 장기도 두고 끝내자 琴 연주를 듣고 또 작은 琵琶를 가지고 와서 타게 했는데, 琴의 운이 다양한 형태로 변해서 몸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어두워지매 박대균이 와서 보고 가고 정수부가 와서 琴을 들었다. <중략> 밤에 琴을 듣고 돌아왔다.<sup>95)</sup>
- 3) 李守種이 왔길래 琴을 타게 하고 들었다. 新聲은 역시 좋았다.<sup>96)</sup>
- 4) 신국주의 매부 봉양령이 화원에 당도하여 주에 들어왔다. 지나는 길에 들렀다가 갔는데, 茂安守에게 琴을 배웠다고 한다.<sup>97)</sup>
- 5) 봉양령이 아침에 다시 왔기에 금을 내어 치게 했다. 배웠다는 이수종의 소리를 내었는데, 아직 숙련되지 않았다.<sup>98)</sup>
- 6) 개녕에 도착해서 홍충의위의 집에 머물면서 잤다. <중략> 주인이 나를 상대로 이끌어 작별의 잔을 마시고 이어서 수반을 먹었다. 女奴를 시켜 음악을 연주하며 즐겁게 했다. 내가 다시 琴 연주를 듣고 싶다고 하니, 琴手가 서울로 올라가서 李首種의 지법을 배워왔다고 하는데, 들을 만했다.<sup>99)</sup>

1)은 이문건과 이수종의 첫 대면이 있었던 1552년 6월의 일을 기록한 글이다. 이수종의 스승인 정희문을 만났던 때가 1548년이었으니 4년 뒤의 일이다. 장악원 악공인 이수종이 성주까지 오게 된 계기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문건에게 상주로 돌아간다면 이수종이 작별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sup>100)</sup> 상주가 고향인 관노 출신으로 휴가차 내려

聽琴，與而晦着將棋，暮與守種着圍碁。

95) 1552년 7월 10일. 朝食而上南亭取快，午後淒風吹起，圍帳而坐，請李守種來，與之着碁，敵手也，兼着將棋，棋罷聽琴，又以小琵琶持彈之，琴韻多變態，可悅於身也，暮朴大鈞歷見去，昏鄭壽夫來聽琴，<중략> 入夜聽琴，乃罷而還。

96) 1556년. 9월 4일. 李守種歷見，令彈琴聽之，新聲亦可好也。

97) 1557년 12월 8일. 中國柱妹夫鳳陽令到花原入州，歷見去，學琴於茂安守云。

98) 1557년 12월 10일. 鳳陽令朝復來見，出琴使鼓之，學爲李首種聲而未熟者。

99) 1553년 윤3월 27일. 行到開寧，洪忠義衛宅止宿。<중략> 主人引我上堂，飲餞杯，繼設水飯啗之，令女奴奏樂侑之，吾更求聞彈琴聲，琴手委上京學得李首種指法來云，可聽也。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문건은 정희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수종의 명성을 이미 듣고 있었다. 그래서 이수종이 성주 관아에 왔다는 소식을 접하자 곧바로 불러들여 短琴을 치게 하고는, 소문대로 과연 제대로 新聲을 익혔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수종의 琴 연주에 대한 이문건의 반응은 즐거움, 즉 ‘悅’이었다. 2)에서 이수종의 비파 연주를 듣고 난 후의 반응 역시 ‘悅’이었다. 이는 정희문의 琴 연주를 듣고 난 후의 반응인 ‘妙’와는 사뭇 다르다. 이 열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수종은 변화가 많은 연주법을 택했음을 2)에서 알 수 있다. 이수종은 선율의 기복을 많이 주어 신명을 끌어낼 수 있는 음악을 구사했다면, 정희문은 절제된 선율 속에서 고품을 유지하려는 음악은 견지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新聲과 古調의 차이였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당연히 신성인 이수종의 음악이었을 것이다. 2)에서 오후 무렵에 시작된 이수종의 연주는 밤이 되도록까지 이어졌을 만큼 이문건은 이수종의 음악에 심취해 있었다. 특히 3)에서 이로부터 4년 뒤에 다시 성주에 온 이수종의 음악을 들으면서 역시 신성이 좋다는 평가를 이문건이 내렸다는 것은, 이수종의 음악이 당시 음악계에 유행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4), 5), 6)에서는 서울에서 주로 활동한 이수종의 신성이 전국적으로 유행할 수 있게 되는, 음악의 전파 경로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어 주목된다. 4)에서 사족인 봉양령은 무안수에게 琴을 배웠다고 했는데, 이 무안수가 봉양령에게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수종의 주법이었다. 무안수 역시 장악원 악공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7세기에 편찬된 금보집인 『현금동문유기』에 그의 악보가 남아 전할 만큼 지명도가 높았던 인물이다.<sup>101)</sup> 그런데도 봉양령에게 이수종의 음악을 가르쳤다는

100) 1552년 7월 13일 李守種朝來見, 使彈琴數調而聽之, 卽辭去, 今日欲還尙州云云.

101) 이득윤, 『현금동문유기』,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5, 은하출판사 영인, 1989, 104면 참조.

것은, 이미 이수종의 음악이 당시 음악계의 대세를 이루어서 악공들 사이에 먼저 전파되어 있었고, 이는 후속적 전파의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봉양령은 그런 후속 전파의 수혜자인 셈이다. 한편 6)에서는 개령에 사는 홍충의위라는 사람은 음악적 재능이 있는 여비를 서울에 사는 지인에게 위탁해서 이수종의 연주법을 배워오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여비가 琴手의 자격으로 이문건 앞에서 이수종의 주법에 따라 琴을 연주했고, 이를 들은 이문건은 들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여비가 개령의 관비인지, 아니면 홍충위 개인 소유의 家婢인지는 알 수 없고, 또 이수종에게 직접 배웠는지 다른 악공에게 배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방과 서울 간에 문화적 교류가 이루지면서 서울의 고급 문화가 지방으로 전파되고 이를 지방 사대부들이 향유하게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3. 결론

李文樾의 『默齋日記』는 작가의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기록한 생활 자료이지만, 이를 통해 16세기 지방 문화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한 자료적 가치와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목재일기』 중 이문건이 유배왔던 성주에서의 22년간의 기록을 대상으로 지방의 음악담당층인 妓生과 樂工의 존재 양상을 고찰했다.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기간 중 성주에서 활동했던 기생은 약 80명 가량이었으며 모두 官妓였다. 이들은 선상된 경험의 유무에 따라 京妓와 地方妓로 구분되며, 경기는 다시 京上妓와 京來妓로 구분된다. 이처럼 성주 지역 경기의 존재는 지방기들이 꾸준히 장악원 기생으로 선상됨으로써, 본읍과 서울을 왕래하거나, 본읍에 복귀하여 활약하는 가운데 경향간의 예술적 교류와

소통에 기여했음을 가늠케 했다. 그리고 기생으로서의 복역 기한은 사실상 종신까지 지속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생들의 주된 임무는 음악적 기예를 제공함으로써 연회의 즐거움을 돕는 것인데, 실제로는 사대부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행사에도 기생이 동원되었고, 특히 사대부들의 술자리 모임에서 行酒 儀式을 치루기 위해서는 妓樂이 필수가 되다시피 했다. 연행 현장에서 기생이 제공한 기예는 노래와 琴의 연주가 일반적이었다. 관의 명에 따라 사대부들의 연회에 동원된 지방기들의 기예는 그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주로 유흥을 복돋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연행되는 데서 그쳤다. 그러나 일부 京妓들은 높은 기예 수준을 갖추어서 사대부들의 예술적 취향을 만족시켰다. 이를 彦伊, 長非, 露凝香, 卓文兒 등의 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노래에 탁월한 기예를 가지고 있었으며, 노옹향은 특히 가야금 연주 실력이 특출해 남다른 인기를 누렸다. 한편, 선상된 경험 없이 성주에서만 계속 활동했던 地方妓이지만 京妓 못지않은 기예를 지닌 기생도 있었으니, 銀臺仙이 그러한 예다.

지방의 경우 기생의 기예 중 노래와 기악은 예술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춤은 사대부들에게 특별한 미감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춤은 壽宴과 같은 특별한 행사나 질탕한 연회 속에서 이루어져 주연의 흥을 진작시키는 데만 소용되었으며, 정재와 같은, 높은 예술적 기예를 갖추어야 하는 춤이 지방에서 공연되기 어려웠던 환경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지방의 기생이 서울로 選上되는 과정과, 다른 지방의 행사에 차출되는 과정을 통해 서울과 지방, 지방과 지방 사이의 음악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성주와 그 인근 지역의 악공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방 악공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 악공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笛工이었다. 이들은 주로 기생과 함께 사대부들의 연회에서 피리를 연주하여 연석의 흥취를 고양할 목적으로 동원

되었다. 이들은 官奴 중에서 발탁되어, 평소에는 관에서 부여한 奴役に 종사하다가 관의 명에 따라 笛工의 역할을 겸했다는 점에서 한시적이고 비자발적인 음악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성주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業山, 介, 卜成, 金石, 呂孫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관노 신분이긴 하되, 음악적 기예 연마에 주력하여 특정 악기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적 성취에 도달하여 전문 음악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 千終, 張豹, 枝孫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록 관노이긴 하나 자신의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주로 사대부들의 풍류적 삶에 밀착해서 생활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음악은 연석의 흥취를 고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악기 연주에서 사대부들이 기대하는 예술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어서, 기예 연마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과 숙련의 과정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특정 악기에서 일가를 이루는 경향을 보였다. 천종은 笛, 장표는 琴, 지손은 伽倻琴 연주가 각각 전문이었다. 이들은 특정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대부의 여행이나 지방 행차에 동행하면서 음악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기예를 제공하는 일을 맡아했다.

이와는 달리, 서울의 장악원에 소속된 악공으로서 지방으로 내려와 악기를 연주한 음악인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鄭希文과 李守種인데, 둘다 琴을 전문으로 다루었다. 이들은 사제지간으로서 동시대를 살면서 악공으로서의 썩벽을 이룰 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렸는데, 정희문은 古調의 정통성을 이어가고자 했고, 이수중은 스승의 음악에 변화를 주어 新聲을 창안하여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음악적 성향을 지녔다. 따라서, 이들의 지방 출현은, 서울의 고급 음악과 최신 유행 음악을 접할 기회를 맞았으니 사대부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단순히 관심의 표명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회로 서울 음악의 경향을 파악하고 배워서 지방 음악을 쇄신하

려는 노력을 사대부들이 적극적으로 기울였다 점에서, 이 음악인들이 지방 음악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지방의 전문 음악인은 다른 지방과의 음악적 교류를 가능케 했다면, 서울의 전문 음악인은 지방과 서울의 음악적 격차 해소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각각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이 논문은 16세기 사대부들의 음악 향유 양상에 관한 연구이기도 한데, 지역으로는 성주에, 음악 담당층으로는 기생과 악공에 국한해서 논의되었다. 성주 지역의 음악 향유의 실상이 지방 음악의 향유 실상으로 얼마만큼 일반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사대부 자신이 직접 음악을 연행하며 즐겼던 양상, 기생과 악공 외에 음악 담당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음악적 기예를 지닌 私奴婢의 존재 양상에 대한 문제는 다음 과제로 미룬다.

## 참고문헌

### 1.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

『명종실록』

姜 渾, 『木溪先生逸稿』, 『韓國文集叢刊』 17.

權應仁, 『松溪漫錄』, 『국역대동야승』 XIV, 민족문화추진회, 1973.

成 倪, 『慵齋叢話』, 『국역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1.

沈守慶, 『遣閑雜錄』, 『국역대동야승』 III, 민족문화추진회, 1973.

李得胤, 『玄琴東文類記』,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5, 은하출판사 영인, 1989, 77~121면.

李文樞, 『默齋日記』, 국사편찬위원회.

周世鵬, 『武陵雜稿』, 『韓國文集叢刊』 27.

許 穆, 『記言』, 『韓國文集叢刊』 98, 99.

朴枝華, 『守庵先生遺稿』, 『韓國文集叢刊』 34.

### 2. 논저

강명관, 「조선전기 사대부의 음악향유의 제 양상」,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107~156면.

김동욱, 「이조기녀사서설」, 『아세아여성연구』 5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66. 73~116면.

김현영, 「16세기 한 양반의 일상과 재지사족 -『묵재일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8집, 조선시대사학회, 2001, 63~102면.

박규홍, 『시조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96.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98.

송방송, 『악장등록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이규리, 「〈읍지〉로 본 조선시대 관기운용의 실태」, 『한국사연구』 130집, 한국사연구회, 2005, 151~187면.

이능우, 『고시가논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이성임,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女妓의 立役과 運用」, 『대동한문학』 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79~112면.

<Abstract>

## Gisaeng; Korean geisha and court musicians of Seongju area in the 16C - focused on 『Mukjaeilgi』

Ryu, Sok-Young

『Mukjaeilgi』 of Lee, Mun-geon is the detailed and successive data on daily life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be able to identify the reality of local. This writing studied the aspects of Gisaeng and court musicians through the records which were written by Lee, Mun-geon during his 22 years of exile to Seongju region. The summary of discussion is as follows.

The number of Seongju Gisaeng amounted to eighty and they all belong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ir main task was to boost the pleasure of various parties by performing their arts. Singing and playing the geum with twelve strings were commonly performed. Yangban of Seongju preferred Gisaeng's songs to other things. The existence of Noeunghyang, Tagmuna, Jangbi who had excellent singing talent could be exposed. By trailing them, it could be inferred that how long they served as Gisaeng and what treatment they received materially. Also The process by which local gisaeng were recrui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or other districts actively promoted cultural interchange among the regions.

The fact that some musicians were in Seongju and neighboring regions could be disclosed. They worked hard to get a living or were taken to do forced labor on the ordinary days and also sometimes

served as the musicians. The local musician could play only the willow pipe because of the role restriction. The musicians such as Yocheonjong, Jangpyo, Yoojison, Jeongheeseong, Leesujong were the magic players of geum. Yocheonjong was a good musician who played the tungso excellently and could play the geum. Tracing the life of Jangpyo found out the fact that he became the musician of Jangakwon from local commoner. Jangpyo, Yoojichon, could play the peculiar tone and musical realm different from those of Gisaeng's geum. They gained popularity and received respectful treatment from yangban of Seongju. It means that The performance of geum by the males was enjoyed for the purpose of the artistic appreciation rather than that of excitement.

Unlike the above people, Jeongheemun as the member of Jangakwon had outstanding talent and knowledge but his music was venerated by only a few enthusiasts because it didn't have a fast and impressive tone which the popular music of those days pursued. On the other hand, his disciple, Leesujong was powerful enough to cause a change in the dynamics of the music world those days. The high quality art of Hanyang was translated into local music through this route.

Key Words : 16C, Seongju, Lee, Mun-geon, Mukjaeilgi, Gisaeng (Korean geisha), court musicians, willow pipe musicians.

■ 논문접수 : 2012년 3월 15일  
■ 심사완료 : 2012년 3월 31일  
■ 게재확정 : 2012년 4월 10일